

교통체계 개선 위한 기린대로 BRT 사업 추진

전주시,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 기린대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정류장 설치 교통혼잡 최소화

전주시가 기린대로를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 등을 갖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도에서 '기린대로 BRT의 개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내년 9월 까지 1년간 호남제일문부터 한백고교 교차로까지 기린대로 10.6km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바꾸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정류장을 설치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0억 원 등 총 412억 원을 투입해 1단계 노선인 기린대로에 BRT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좌회전 규제 최소화 및 정류장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한 교통소통영향 최소화 방안 △

가련광장~금암광장 등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및 교차로 용량 증대 방안 △중앙 버스전용 회전차로 등 노선 버스 회전이 많은 교차로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1년간의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말 BRT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국토교통부의 BRT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주시역 3개 노선 중 나머지 백제대로와 송천중앙로도 순차적으로 BRT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기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 교통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부여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전주시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 예수병원은 원산소방서와 합동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든다

전주 예수병원, 원산소방서와 매년 합동소방훈련 실시

전주 예수병원(원장 신충식)은 원산소방서와 합동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내 화재 대비 체계와 소방사의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이번 합동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인명 대피 활동을 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예수병원 자위소방대는 △구호반 △난출반 △소화반 △대피반 △복구반으로 편성된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 소방훈련을 통해 유사시 화재 및 재난 대비에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병원 자위소방대원들은 화재 초기 진압과 병동 내 환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후송과 대피를 신속하게 도왔다.

최국재 예수병원 시설관리과 과장은 "예수병원은 지속적인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병원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소방 훈련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병원이 될 수 있게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훈련 포부를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이뤄내야”

이기동 전주시의장,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제안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전북 14개 기초의회 의장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의회조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이날 입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의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연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인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 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건의안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입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의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 보낼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혁신단' 출범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시민참여혁신단'이 공식 출범했다.

공단은 19일 화산체육관 공단 본부에서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참여혁신단 위원들과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설정돼있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과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혁신단은 '혁신분과'와 '정책분과', '예산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행정학과, 건축학과 교수들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언론인, 체육인,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 등 총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사·조직 혁신 방안, 공모 사업 및 주요 제도 개선 예산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 여론 수렴이 혁신단의 주요 역할로, 사실상 정책 결정부터 예산 운용까지 공단 운영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혁신단을 통해 '시민의 놀이터'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공단의 궁극적인 목표다.



전주시설공단은 19일 화산체육관 공단 본부에서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참여혁신단 위원들과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가졌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 공식 출범으로 전주시설공단을 전주 시민들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위령제 열려

고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산화한 전주지역 전사자 46위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월남전참전 전주시지회(회장 김귀민)는 19일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에서 우범기 시장,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이날 위령제는 살풀이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및 추모사, 추모 헌시 낭송, 피열부대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들은 또 새롭게 단장한 보훈누리공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월남전참전 전주시지회는 19일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에서 우범기 시장,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남전 참전 전주지역 전사자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추모사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타지에 참전에 젊은 청년이 전사한 우리 지역 영령들의 현신을 되새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추워 전주매일 창간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

무주구청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